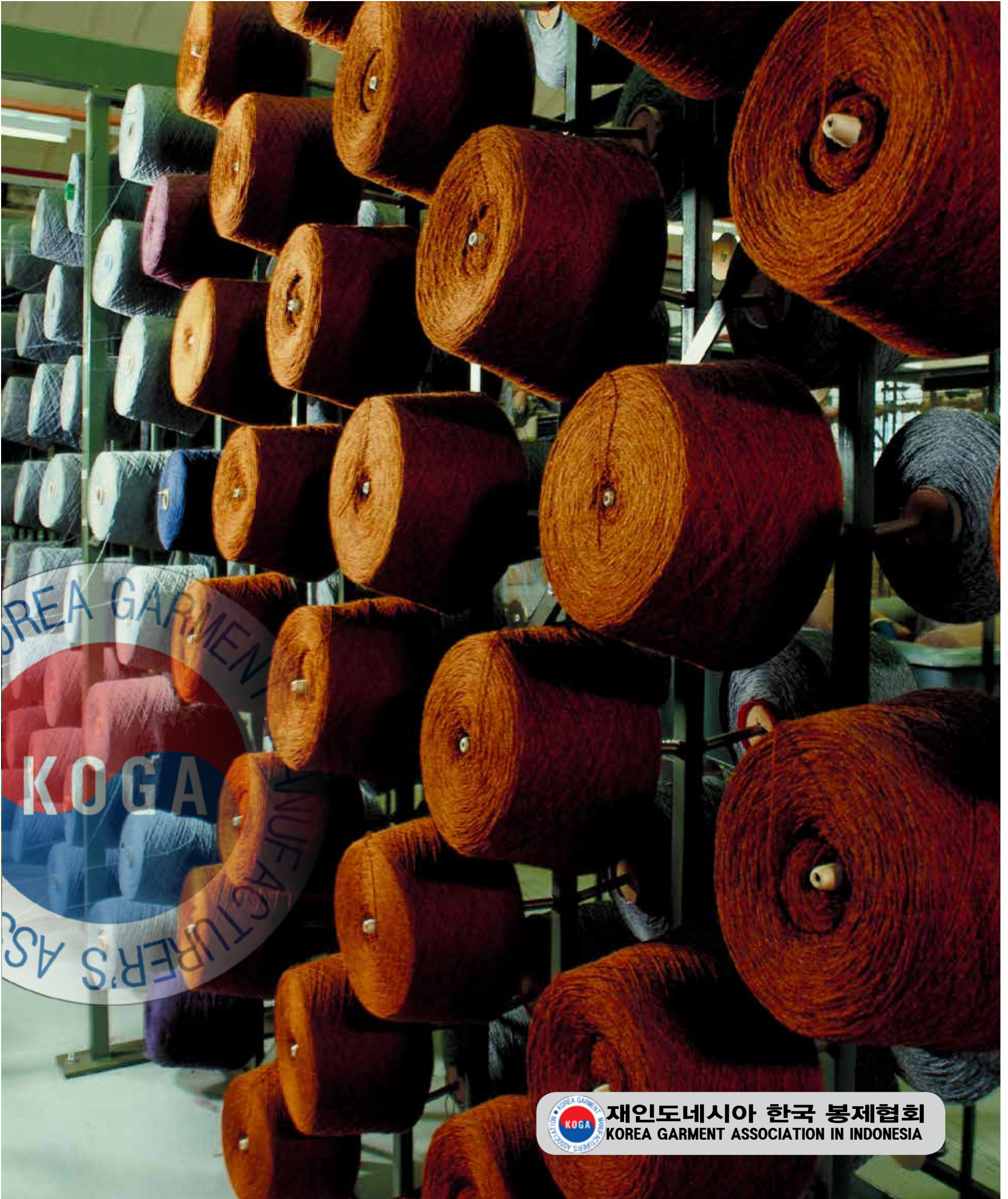




2019년 제 30회 인니 봉제인 축제의 장 열렸다.

지난 29일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30주년 기념과 박재한회장의 뒤를 이어 제 30대 안창섭회장의 취임으로 봉제협회는 새로운 비상을 하기 위한 출발을 했다.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지 Vol. 24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재인니 봉제협회 창립 30주년 맞아 봉제협회 안창섭 회장 취임



각 지역별 노래자랑과 다채로운 행사 열려 새로운 30년을 위한 다짐의 장이 되어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날 척박했던 한인 기업 환경속에서 풀뿌리 근성으로 일구어 왔던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기업들의 30년 역사는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끈기있는 정신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봉제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일구어왔다. 지난 29일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 30주년 기념과 박재한 회장의 뒤를 이어 제 30대 안창섭회장의 취임으로 봉제협회는 새로운 비상을 하기 위한 출발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한인 봉제기업 진출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이끌어 가게 된 안창섭 회장은 현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



(KOCHAM)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인기업의 권익을 위해 힘써왔고 인도네시아 정관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관련기업들과의 돈독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봉제기업의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가장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창범대사를 비롯해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 송창근회장, 코린도그룹 승은호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과 KOGA회원사가 참석해 KOGA의 새로운 집행부에 격려와 노고를 부탁하는 자리였다.

김창범 대사는 30년간 어려웠던 시절을 잘 버티고 KOGA를 이끌어 주신 회원사에게 감사함을 표했으며 KOGA가 있었기에 한인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KOCHAM 송창근회장은 음식은 나를 위해 먹고, 옷은 남을 위해 입는다는 말로 KOGA는 봉사의 기본바탕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으며 KOCHAM의 수석부회장으로 8년간 봉사해 온 안창



섭회장의 진정성에 감사했다.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다시 코가를 외친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KOGA의 재임기간에 다 못한 일들이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으며 안창섭 신임회장의 역량으로 새로운 비상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KOGA행사중 각 지역별 노래자랑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KOGA회원사의 노래 솜

씨를 뽐내기도 했으며 모처럼 산업현장을 벗어나 봉제기업들의 화합과 즐겁고 화기애애한 행사로 이어졌다.

KOGA 30년! 이제 새로운 30년을 위한 그 출발을 신임 안창섭회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KOGA가 우리봉제기업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언덕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 힘찬 출발을 기대해 본다.

산업부, 5년 이내에 현지조달비율 40% 달성 목표



▲ 인도네시아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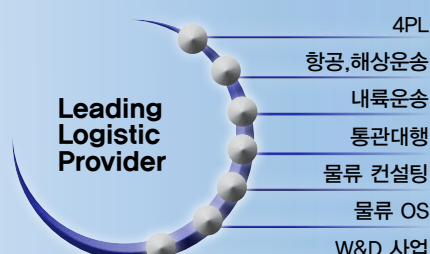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은 8일 국가 예산이 할당된 모든 부처와 기관, 국영 기업에게 현지조달비율을 향후 5년 안에 40% 이상으로 끌어 올리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산품 활용 추진 프로그램(P3DN)의 일환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P3DN에 대해 아구스 산업장관은 “정부가 국산품을 활용하면 국내 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국영 기업도 국내 산업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P3DN 관한 규정은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25% 비싸도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설명했다. P3DN는 대통령 통지령 ‘2018년 제24호’로 규정되어 있다.

www.f1-logix.com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도네시아 내년 최저임금 8.51% 인상 ... 노사 모두 불만

지역 따라 2배 이상 차이...의류·봉제산업 중부 자바쪽으로 이전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8.51%로 정하자 근로자 측에서는 너무 적다고 반발하고, 생산자 측에서는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3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인플레이션 3.39%와 경제성장률 5.12%를 합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1% 올리라고 기준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은 2016년 11.50%, 2017년 8.25%, 2018년 8.71%로 꾸준히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주, 시·군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가장 높은 곳은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이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올해 394만973 루피아(32만8천원)에서 내년도 427만6천349 루피아(35만5천원)로 오른다.

인근 보고르시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416만9천808 루피아(34만7천원)로 올린다.

반면, 중부 자바 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2천여루피아(14만5천원), 동자바주는 176만8천여루피아(14만7천원)로 15만원이 안 된다.

최저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 본래 보고르·

브카시·뿌르와카르파·까라왕 등 자카르타 외곽에 있던 의류·봉제·섬유공장들이 빠르게 중부 자바 쪽으로 이전하고 있다.

생산자 측에서는 “임금은 빠르게 오르는데 생산성은 그만큼 따라 오르지 않는다”며 “폐업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베트남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5.5% 인상하기로 결정, 월 307만~442만동(약 15만5천~22만4천원)이 된다.

최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중국에서 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지난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

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투자유치’라며 규제개혁 등 해외 투자자를 끌어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이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카다록
도서출판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카렌다
행택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터서

콤프레터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자카르타 내년 주최저임금 428만 루피아로... 전년비 8.5% 상승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특별 주정부는 1일 내년 주최저임금(UMP Upah Minimum Provinsi)을 월 427만 6,350루피아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 34만 루피아(8.51%) 상승해 처음으로 4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월 460만 루피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항의 시위를 계속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지난달 28일자로 제정, 29일자로 공포한 주지사령 '2019년 제121호'에 따라 규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10월 시점의 인플레이션(3.39%)과 경제성장률(5.12%)을 가산한 8.51%로 설정했다. 이는 8.03%의 전년 대비 상승률 보다 0.48 포인트 웃돌았다.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15년 270만 루피아에서 5년간 60% 가까이 상승했다. 자카르타는 또한 주최저임금이 설정된 후 업종별로 구분된 부문별 최저임금도 설정된다. 2019년의 부문별 최저임금은 일부 업종에서 500만 루피아를 넘어섰다.

현지 매체 드렉닷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한 관계자는 2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 금액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이달 20일까지 항의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전국의 주지사들에게 주최저임금을 11월 1일 일제히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서부 자바주와 중부 자바주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을 각각 181만 351루피아와 174만 2,015루피아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매년 주가 적용하는 지역최저임금(UMK Upah Minimum Kota)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의 주최저임금을 크게 웃돌고 있다.

현지 국영안파라 통신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34개 주 중 20개 주가 주최저임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19개 주가 정부가 설정한 인상률 8.51%를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준수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주최저임금의 인상폭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8%를 넘어서고 있다.

국영 우편 뽀스 인도네시아, 당일 배송 서비스 Q9 화물량 2개월 만에 5배 증가

인도네시아 국영 우편 뽀스 인도네시아(PT Pos Indonesia)는 당일 배송 서비스 'Q9'의 1일 화물 취급 수가 4,00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9월 9일 처음 서비스가 개시한 이후 2개월 동안 약 5배

증가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뽀스 인도네시아의 파파 수기아르파 부부장(마케팅 부문)은 “전자상거래(EC)의 이용 확대가 기여하고 있다”라고 언



급했다.

한편, Q9 서비스는 최대 5kg까지 짐을 접수받은 후 10시간 이내에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30년 기념식...협력은 필수



▲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식[자카르타=연합뉴스]

아세안 사무국 청사서 700여명 초청... 특별정상회의에 기대 표명

주 아세안 한국대표부는 7일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성남 아세안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아세안과 한국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서로의 경험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땀 수 없는 친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대사는 “한·아세안 협력 관계가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특히 11월 말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아세안 주재 아세안 회원국 대사들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립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난 30년간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안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했다”며 “아세안은 한국

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며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이날 행사에 앞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마음이 가장 잘 통하는 번영과 평화의 동반자”라고 양자 관계를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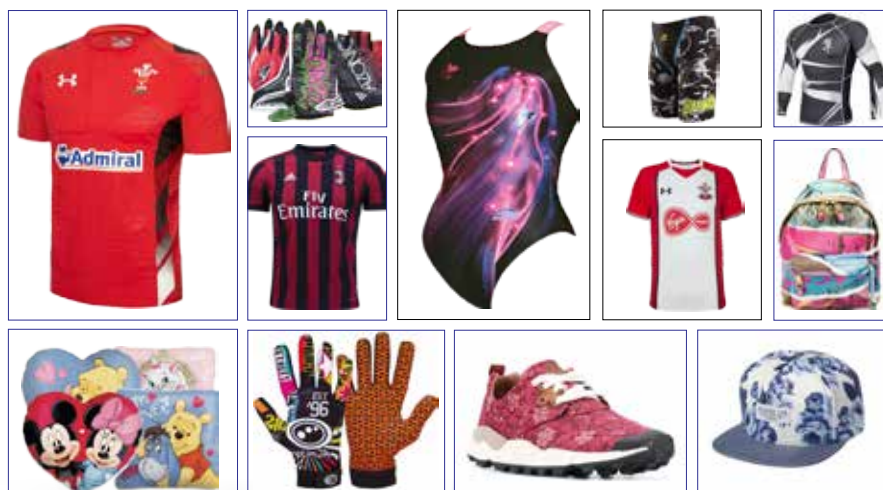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해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아세안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다.

대화 상대국도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 유럽연합(EU) 등 10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첫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고, 2014년 12월 부산에서 개최한 데 이어 이달 25~26일 부산에서 세 번째 특별정상회의를 연다.

임 대사는 “아세안 대화 상대국 가운데 특별정상회의를 세 번째 개최하는 국가는 우리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섬유업계, 수입품 증가로 생산라인 12개 폐쇄



인도네시아 합성섬유생산자협회(Apsyfi)에 따르면, 수입직물과 기성복의 대량 유통으로 10월에만 상류 부문의 생산라인이 12개 폐쇄됐다. 이 가운데 4개 라인만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 8개 라인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 라인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8일자 보도에 따르면 Apsyfi의 레드마 사무총장은 “생산라인을 폐쇄한 것은 국내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 생산업체 4개사 중 2개사,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 업체 8개사 중 4개사이다”라며 구체적인 사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은 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동률을 65~70%까지 인하하고 있어 가동률은 더욱 낮아졌다. 오스트리아 섬유 기업 렌징 인도네시아 자회사 사우스 퍼시픽 비스코스(PT South Pacific Viscose)의 위디 홍보 부장은 생산라인 폐쇄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잇따른 생산라인 폐쇄는 수입품의 압력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제 30 회 KOGA GOLF 선수권 명단				
분류	성명	회사명	관조 내역	거점
전체인원	안철성	KOGA 회장	총인원 기점 + 총인원 R\$20,000,000	
	한승경	LECTRA	골프교 180 줄	
	박재환	한인회장	골프교 180 줄	
	이거영	PTM	골프교 180 줄	
	그공회	BOSUNG	소형목 200 줄	
	박재환	TAEWON	골프교 200 줄	
	KOGA	KOGA	골프교 200 줄	
	황준	JUNH	백시제 190 줄	
	류재현	KARLO	화장품 190 줄	
현금	박재환	한인 회장	R\$50,000,000	
	김세환	KORI	R\$20,000,000	
	김종섭	국가부회장	R\$20,000,000	
	안재준	TIGA SUNUNG	R\$10,000,000	
	김영훈	모발협회장	R\$10,000,000	
	김진호	GAYA MAKJUR	R\$10,000,000	
	이동진	KORINA SIMARANG	R\$5,000,000	
	김소연	PERMATA	R\$3,000,000	
	한재수	한국협회 회장님	R\$5,000,000	
	김정호	ING	R\$5,000,000	
배합기류	송철근	KOCHAM 회장	한국 퍼스트 클래스 클럽	
	차상현	아시아나 지점장	한국 퍼스트 클래스 클럽	
	이세호	GORI	한국 이코노믹 클럽	
	조규환	DONGJUNG	한국 이코노믹 클럽	
	양태화	BOSUNG	한국 이코노믹 클럽	
	이태성	신한은행	한국 이코노믹 클럽	
	양영연	한인회 명예회장	한국 이코노믹 클럽	
	권민식	한인회 자원위원	한국 이코노믹 클럽	
	김정구	한국 퍼스트 클래스 클럽	한국 이코노믹 클럽	
핸드폰	이종규	고대 회장	삼성 갤럭시 핸드폰 10+	
	송민호	국민은행장	삼성 갤럭시 핸드폰 10	
	최정호	우리은행장	삼성 갤럭시 핸드폰 10	
	박주영	IBK 기업은행장	삼성 갤럭시 핸드폰 10	
기타	김진	YURI	골프백	
	박정현	KENLEE	골프백	
	김재환	KPL	골프백	
	김태성	DS LOGIS	골프백	
	홍창근	키고 물리자	골프백	

정부, 경제성장을 위한 아홉 가지 전략 발표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청(OJK)은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인 5.3%를 달성하기 위해 9개 전략을 내세웠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도 목표로 한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 데일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9개 전략은 (1) 중앙은행의 정책과 정부 경제 정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정부, 중앙은행, OJK의 협력 강화 및 차량과 섬유, 전기 등의 제조사업 분야 개발, (3) 투자 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개발 진행, 경제특구와 관광특구 개발, (4)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협력 강화 및 무역 투자 활성화 도모, (5) 세금 우대 조치 시행, (6) 천연자원의 하류 산업 발전과 수입 대체 국산화 가속, (7)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 보급, (8) 국가 예산 확대, (9)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관리 등이다.

스리 재무장관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업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중앙은행, OJK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비마 경제학자는 “5.3%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출품의 수요 및 가격 하락과 더불어 국내 건강 보험료와 고속도로 요금 인상 등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 일용품의 소비 감소와 수출 감소를 막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언급했다.

美무역대표부, 인니서 수입하는 5개 품목에 관세 철폐

아구스 수빠르만토(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5개 품목에 일 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하여 관세를 철폐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대나무 합판, 두께 66mm 미만의 합판, 건조 양파, 등나무(새순) 수공예품, 설탕 시럽·인공 꿀 및 캐러멜이다.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누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아르산에 대해서도 GSP의 적용을 요구했으나, USTR이 정하는 ‘경쟁에 필요한 제한(CNL)’ 이상 수출되어 이 신청은 인정되지 않

았다. 미국은 GSP 하에 운영 중인 CNL 제도를 통해 매년 GSP 수혜 국가로부터 특정 제품이 일정 기준 이상 수입되면 GSP 혜택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제품에 GSP가 적용되는 것은 3,572개 품목이다. 이 중 실제로 수출되는 것은 836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GSP 적용 품목에서 가장 수출액이 높은 것은 자동차 타이어로, 금 목걸이, 지방산, 가죽 가방, 장식품이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액 184억 달러 중 GSP 적용 품목의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였다.

재무부, 섬유 121개 품목 200일간 잠정 세이프 가드 발동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원사 및 섬유 직물 등 섬유·섬유 제품(TPT) 121개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9일부터 긴급 수입 제한(세이프 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했다. 발동 기간은 200일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잠정 세이프 가드에 관한 재무 장관령 ‘2019년 제161호’, ‘2019년 제162호’, ‘2019년 제163호’를 5일자로 제정, 6일자로 공포했다. 대상 품목은 합성 섬유 및 인공 섬유 등 6개 품목과 천 제품 107개 품목, 커튼, 블라인드 등 인테리어 소재 8개 품목이다

세이프 가드 발동에 따른 특별 관세는 실 6개 품목이 1

킬로그램 당 1,405루피아, 섬유 제품 중 104개 품목이 1미터 당 1,318~9,521루피아, 커튼 등 8개 품목은 1킬로그램 당 4만 1,083루피아이다. 천 제품 중 재생 섬유 및 반합성 섬유 직물 3개 품목은 관세를

36.4~67.7%로 설정했다.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의 요청으로 조사한 무역부 상업거래감시위원회(KPPI)는 원사 및 직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했다.

원산지증명서 고치면 새 발급번호... 中·아세안 통관 쉬워진다

관세청, 19일부터 새 발급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적용을 위해 꼭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를 정정할 때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C/O 정보 중 일부를 고쳐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를 최초 번호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아세안 국가는 한국이 정정 발급한 C/O 번호가 수정 전 번호와 같다는 이유로 종종 C/O의 진위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FTA 특혜 적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 중국과 ‘전자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EODES)’에서도 정정 후 같은 발급번호 탓에 수신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O 정정 발급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2주간의 안내와 홍보를 거쳐 새 발급 시스템을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Contact person

Mr. Baek, K.S E-Mail : dolphin0524@gmail.com
Mr. ADE NENDA HP : +62 857 183 95894
E-Mail : ade.nenda@yahoo.co.id

Polyester BOA

- SOL SDF FABRIC - SOL FDF FABRIC
- SOL MICRO FABRIC - BK BOA FABRIC
- SOL BR PUB FABRIC - BOA PRINTING

Polyester EF & VEL BOA

Available in 2.5mm and various colors
Available in special finishing such as Astra, Mogul and Snail .

印尼 신발산업협회, 내년 ‘부문별 지역최저임금’ 거부 방침



인도네시아 신발산업 협회(Aprisindo)는 내년 일부 주에서 설정한 업종별로 구분된 부문별 지역최저임금(UMK/Upah Minimum Kota)에 대해 거부할 방침이다.

12일자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주최저임금(UMP/Upah Minimum Provinsi) 인상률을 8.51%로 설정하고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이 별도로 설정되면, 특히 수출 지향의 노동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다.

Aprisindo의 라니 사무국장은 “지금까지는 자카르타특별주와 반둥주, 동부 자바주 가 제화산업의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을 설정했다”며 “각 주지사들에게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을 철폐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임금에 관한 시행령 ‘2015년 제78호’에 대해 산업별 경기 동향이 최저

임금 설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 연합(Gapmmi) 아디 회장 역시 “주최저임금과 부문별 지역최저임금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 것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면 국내 산업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프레쉬 오더

프레쉬오더 생산
스타일당 3~4개 컬러 1만장 이상
컨테이너 베이스
Mens/Ladies/Girls/Boys

캔슬오더/STOCK:대량수량매입

+62 858 1369 4992
6shg10@gmail.com

PT SHINHAN GLOBAL INDONESIA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Webtoon

웹툰(webtoon)이란 Web(웹) + Cartoon(만화)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카툰이란 애니메이션 만화나 그 만화의 캐릭터, 또는 신문에 실리는 4컷 정도의 만평을 의미하고, 코믹은 만화책을 의미하는 코믹 북의 준말이다. 웹툰은 웹코믹(Webcomic)이라야 제대로 표현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르고 사용하다 정착된 것이다.

일본이 망가(만화)왕국이라면 우리나라는 웹툰의 왕국이다. 글로벌 콘텐츠 왕국이 된 것이다. 웹툰은 만화에서 드라마와 게임까지 이웃한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만들어졌다. 이리하여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라는 말이 등장했다. 대표작으로는 코믹하지만 웃으며 볼 수만은 없는 영화 ‘신과함께’를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을 두고 많은 작가들이 뛰어들었다. 잘만하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은 유명작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네이버 웹툰’은 작년에 72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1분기 월간활성이용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900만 명 이상 증가한 5,500만 명을 넘었다면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놀라운 시장이다. 미국과 동남아에서 특히 인기다. 미끼로 던지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보다보면 감질나서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

웹툰을 만드는데는 렌더링(rendering)이란 말을 이해해야 한다. 렌더링이란 아직 제품화되지 않고 준비 중인 물건을 누구나 그 외관이나 기능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물 그대로 그린 완성 예상도라고 하면 될 것이다. 디자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악보를 초연해 보는 것도 렌더링이다. 실물과는 다소 다르더라도 조감도를 생각하면 된다. 2차원의 평면 그림에 그림자나 농

도, 명암 등을 적용하여 입체감을 주어 물체가 보다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평면적으로 보이는 물체에 그림자나 명암의 변화 등으로 입체감을 보이는 것이다. 물체와 모서리만을 그려주는 와이어 프레임(wire frame) 렌더링, 빛의 굴절과 반사 등을 계산해서 조명의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픽셀의 색깔을 정하는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 렌더링이 있고 빛이 난반사될 때 주변의 다른 물체들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레이디오시티(radiosity) 렌더링이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2차원 또는 3차원 장면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 또는 그러한 기법을 말한다. 보통 ‘3D 렌더링’과 같이 3D 이미지·영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기술적 발전도 이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건물 설계,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엄밀히 나누면 3D 형상 제작 과정은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으로 나뉜다. 모델링이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렌더링은 그 골격 표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렌더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델링 과정에서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영상이나 게임분야에서는 렌더링 과정도 거친다. 렌더링에는 투영(Projection), 클리핑(Cliping), 은면처리(hidden Surface), 셰이딩(Shading), 매핑(Mapping) 과정이 포함된다.

웹툰은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밀어 올리며 보는 것이 쉽다. 글자는 많지 않아 대강 보아도 알 수 있다. 펜으로 스크린에 그리고 지우기도 쉽다. 그래서 발전한 건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읽고 쓰는 것에서 보고 듣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다. 콘텐츠는 즐거워야 끌린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면 더 좋다. 외설이나 음란물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다.

신문도 eBook이나 동영상, 웹툰으로 채



조 기 조 교수

워지고 있다. 웹진(web + magazine)과도 그게 그것이 될 것이다. 융합(convergence)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사도 읽어주면 좋을 것이다.(읽기 기능이 있다.) 마치 일을 하며 라디오를 듣듯이 신문 기사를 듣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세계 제일이다. 이곳, 현지의 소식은 곧 세계적인 소식이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지 않은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변의 훈훈하거나 가슴 찡한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곳, 로컬을 글로벌로 펼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답이다. 앞으로 신문이 방송과 어찌 다르겠는가?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 읽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영역을 넓히지 않고는 고사하는 골목 가게가 될 것이다. 그 자리에 맛깔 나는 동네 카페로라도 변신을 해야 살아남을 것이다. 신문에 한 것이라도 웹툰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ijocho@uok.ac.kr

(82) 10-9080-2449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21-4303-8822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제7회 아세안 전통 섬유 심포지엄 24일부터 5일간 족자카르타서 개최



지컷의 2019 윈터 패딩 컬렉션 ‘Almost Winter(올모스트 윈터)’이 주목받고 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의 여성복 브랜드 지컷이 이번 시즌 다양한 기장과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한 패딩 컬렉션 ‘올모스트 윈터’를 선보였다. 특히 올 시즌 트렌드에 맞춰 출시한 다양한 디자인의 ‘솜 패딩’이 인기다. 지컷은 이번 시즌 패딩 컬렉션을 통해 그레이, 블랙 등의 기본적인 무채색과 함께 기존 제품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올리브, 아이보리, 핑크 등 산

뜻한 색상의 패딩을 선보였다. 또한 등판 부분에 그래픽을 강조한 캐주얼한 디자인의 패딩, 실용성이 뛰어난 베스트 스타일의 패딩 등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여성스러운 퀼팅 디테일의 트위드 솜 패딩은 지난 9월 출시 이후 2차 리오더(재생산) 될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컷은 솜 패딩 전 제품에 100% 구스다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방풍성 및 경량성 기

능을 강화하고, 고급스러운 폭스, 라쿤피와 차별화된 색상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였다. 이외에도 벨트 포인트가 더해진 코트 스타일, 컬러풀한 퍼 트리밍을 더한 야상 등 다양한 디자인의 롱 패딩도 함께 출시했다. 지컷의 패딩 컬렉션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공식 온라인몰 SI빌리지(www.sivillage.com)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제7회 아세안 전통 섬유 심포지엄 24일부터 5일간 족자카르타서 개최

제7회 아세안 전통섬유 심포지엄(ATTs)이 24~28일 5일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로얄 암바르록도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심포지엄은 ‘포용의 변화와 명예로운 전통’을 주제로 이리어나 영부인 공식 개막할 예정이며, 동남아시아 전통직물협회(TTASSE) 등이 지원해 주관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5일자 보도에 따르면 TTASSE의 구스띠 회장은 “이 행사는 모티프, 재료, 창조 기술 면에서 아세안 전통 섬유의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하며 “아세안 전통 섬유는 세계인이 사랑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또 수제품이 우수하기로 유명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남아 국가 참가국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 등



여러 나라 참가국들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심포지엄 기간 동안 전통 섬유에 관한 연구 논문도 발표되며 사진전과 가방, 액세서리, 디자인 경연대회 등의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협정 통한 수출 확대 도모

인도네시아는 양자간, 다자간 무역협정을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비석유가스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돌파구로 보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수빠르만도 무역장관은 “무역협정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무역수지 동향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최대한 빨리 국제무역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최소 11개의 무역협정을 체결 중



▲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빠르만도 무역장관

에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13개의 무역협정을 비준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무역부는 비석유가스 수출이 2024년까지 6.88%~12.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부 국제무역국의 아르린다 전문가는 “식품과 음료, 섬유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목재, 목제품 등이 수출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1~9개월 동안 19억 5천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2018년의 87억 달러 적자보다 약간 줄었다.

한편, 13개 무역협정 중 인도네시아-호주 포괄경제동반자협정(IA-CEPA)이 11월 18일 의원에서 승인 여부를 두고 논의한다.

호주 외교통상부의 작년 교역액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세계 14위 교역국이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K-텍스타일, 베트남 시장 뚫는다

섬수협, 11월 20~23일 호치민 VTG 展 지원 세창상사·위그코리아 등 35개사 공동 참가

“이제는 중국을 넘어 베트남 의류패션 시장을 뚫기 위해 국내 섬유소재 기업들이 함께 호치민에 갑니다.”

국내 패션소재 기업들이 K-텍스타일의 우수성을 선보이기 위해 베트남 시장에 간다.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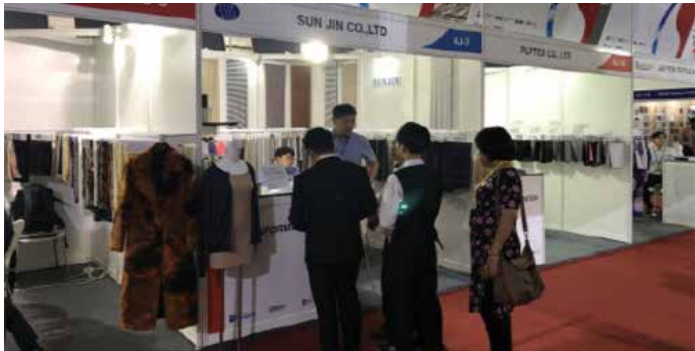
기)는 산업통상자원부(KOTRA)의 지원으로 오는 11월 20~23일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호치민 섬유 의류 산업(VTG 2019) 전시회’에 경원, 알앤디 텍스타일, 세창상사, 을화, 위그

에 배정 예정인 한국관에는 국내 섬유 원사, 친환경 기능성 직물, 액세서리 및 부자재 등 35개사가 참가해 전시 상담할 예정이다. 섬유협은 참가기업의 임차료 및 장치비의 40~50% 내외와 전시품 운송비(부스당 1CBM 한도)를 지원하며, 한국관 프로모션 부스

를 운영해 바이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바이어 매칭과 패션쇼, 피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외에 공동 통역을 제공하며 홍보 디렉토리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섬수협 관계자는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서만 여겨졌던 베트남이 이제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9000만명의 인구, 젊은

인구 구조(평균 연령 30세), 경제 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낮은 기술수준과 인프라 미비가 걸림돌로 작용해 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섬유협이 산업통상자원부(KOTRA)의 지원으로 참가해 국내 기업을 위한 좋은 상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의: 02-6284-5002)



패션 소재 시장으로 다가온 베트남에는 다양한 국가의 의류봉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어 시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섬유수출입협회(회장 민은

코리아, 영풍필텍스 등 35개사로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한다.

19회를 맞은 VTG 전시회는 베트남에서는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적인 섬유 의류 전문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 메인홀인 A2홀

인도 경제 전문가들 “OSS와 세무 시스템 통합해야”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의 인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와 세무 시스템을 통합하여 사업 및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지 매체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세무 시스템은 복잡하고 OSS와 통합되지 않고 있다”며 “OSS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투자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파자르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세무 시스템이 투자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텍스 홀리데이(일시 면세 조치) 등의 혜택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OSS의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및 인허가 제도 등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의 제정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밝은 조짐”이라고 말했다.

보세창고 기준규격

해킹 걱정까지 없어야 진짜 보안입니다

HS View의 영상 데이터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합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폭 놓으세요**

HS View. 이런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지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잘못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과금 방식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2019년 가입 고객사를 위한 하나스타의 특별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www.hanastar.net.id

CWI ERP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 집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www.cyberworld.co.id

PC한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적지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지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연계에 신선

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원-원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 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품명 : 온화(花)하다 이재영 작



▲ 작품명 : Querencial 유희빈 작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 Raya Cibirus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t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 Lee / Mr Sunardi (Mobile Phone: +62-812-128-8816 / +62-813-1984-659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재외동포사회 오랜 숙원 이뤄져
—저소득층 학생 수업료, 교과서 등 안정적인 교육예산 지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 안민석 의원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법률 일부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외국민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며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대표발의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지난 18대와 19대 국

회에도 같은 취지에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배우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2007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 법률만으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은 상당히 부족해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연해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독

립운동역사와 함께해 왔으며,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

를 밝히고 특단의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재외동포사회의 숙원 법안이 18대, 19대에 반대 의견에 막혀 번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환

영할 일이다”며 “수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애쓰신 한국학교 이사장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중국, 베트남 등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 이사장 10여 명이 직접 참석해 법안 통과 과정을 직접 지켜보기도 했다.

[재외동포신문]

해외서 다친 국민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외교부, 국민토론회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식’을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7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될 토론회는 영사조력법의 시행령 등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사조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외교부는 성·연령·지역을 고려해 토론회에 참가할 일반 국민 200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 등을 거친



뒤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할 때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국가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가 특정 외교정책과 관련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심층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증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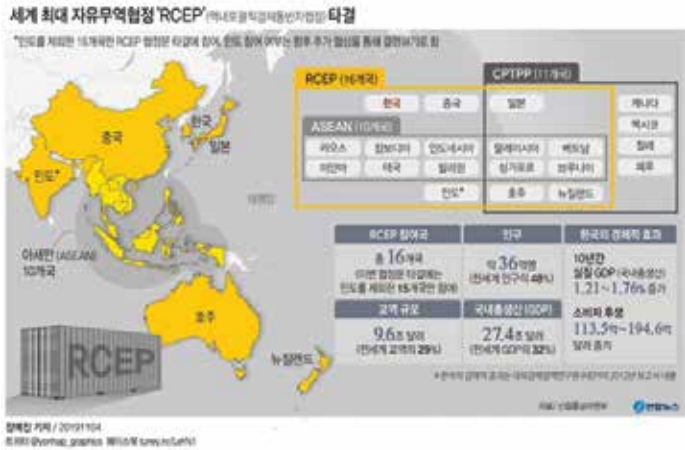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RCEP으로 낮아지는 무역장벽...수출길 ‘활짝’ , 농수산물들은 ‘우려’

원산지 기준 통일해 ‘스파게티볼 효과’ 최소화...제조업 수출·투자 활발해질 듯
RCEP 참여국 중 농수산물 강국 포함 ... 원재료 수출 기회로 삼아야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낮아진 무역장벽을 넘어 15개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처럼 투자 유치 수요가 있는 역내 국가로의 진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시장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고, 나라 간 다른 원산지과 통관 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됐다.

하지만 RCEP 참여국에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강국이나 수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 농수산물 분야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정부와 무역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RCEP은 역내 국가 간 통일된 원산지 기준 적용 등을 통해 양자 FTA 체결 시 발생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엉키고 설린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RCEP에서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국 간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 기업은 현재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만큼 RCEP 체결은 기존 FTA의 제약을 허물고 FTA의 활용률을 더욱 높이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2017년 2월 발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양자 간 FTA를 맺고 있어 RCEP으로 인한 무역 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체결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협상 참여국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표준의 간소화와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거래 비용 절

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관세율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어떤 품목이 수혜를 입고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일단 업계에서는 역내 수요가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과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트라(KOTRA)는 2015년 1월 내놓은 ‘RCE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보고서에서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생산기지에서 전자,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 또한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코트라 보고서는 “한국은 이미 RCEP 참여국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진출 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개발(R&D), 조달, 생산, 유통, 사후관리(A/S) 등의 프로세스를 보다 전략적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RCEP은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인하 조치를 통해 대체로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부문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2월 ‘포스트-FTA 농업동향 현안 대응 방안’에서 “RCE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울무, 고구마, 녹두, 팔과 같은 곡물류와 배추, 당근, 수박, 양파, 마늘, 고추, 생강 등과 같은 과채 채소류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과, 배, 복숭아, 감, 감귤과 같은 품목은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지만, 향후 RCEP 협상 타결이 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과일류의 영향도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RCEP 타결 이후 역내 농식품 수출국은 역외 글로벌 가치사슬(GVC)보다 역내 GVC를 더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이를 원재료 수출 증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RCEP 타결로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고 국민의 후생을 증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Bringing Eco Fashion Graphics to the World !”

A Leading Printing & Embroidery company

“BW를 비롯 Major buyer Audit 취득”





**실리콘 / 줄 / 라바 및 각종 나염인쇄
듀얼 시퀀자수 /시퀀자수 및 각종 자수
승화전사 /스톤 / 비드 / 글리터 / 호일 작업
최신 설비 및 기계 완비.**






(주) 제일 인도네시아
 Bekasi Factory : Jl. Siliwangi Km. 9, Narogong, Kompleks Blue Bird, Bekasi
 Subang Factory : Dusun Sidamukti, Wanakerta, Purwadadi, Subang
 인니영업담당 : 장태선부장 (HP : 0812-5238-8871 / 021-8261-1020)
 E-mail : tsjang02@gmail.com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